

내가 만난 대행스님

거룩한 법의 씨앗 널리 뿌리졌어요

독일 베를린 의대 한스옥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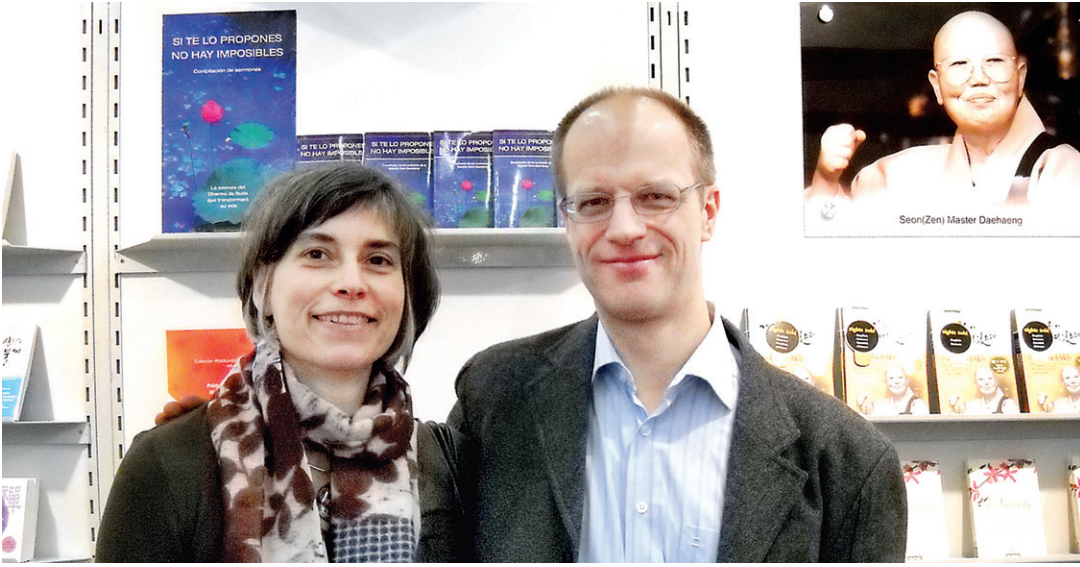
독일인 의사 한스옥 에플레쉬와 그의 아내 베티나 뮌히 에플레 씨는 한 마음선원 독일지원의 회장 부회장직을 각각 맡으며 포교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대행 스님 법문을 늘 생활 속에 되새기며 내면의 불성을 찾고 있는 수행자이기에 어느 누구보다 대행 스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때문에 스님의 원적 소식은 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줬다.

한스옥 씨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바로 이 순간이 올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냥 멍해버린 듯했지요. 그러다가 큰 스님께서 먼 길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충격은 제 마음 속 깊은 곳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저는 ‘세상의 빛이 우리들로부터 가버렸다’는 어디선가 읽었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내 베티나 씨는 큰스님의 서거 소식이 전해졌을 때 회사일로 출장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 있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에 잠겼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나뭇잎 하나, 밀 한 알, 햇빛 한 줄기,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결 속에도 큰스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님께서 마침내 몸을 벗으셨으므로, 어떠한 한계도 없이 모든 것들과 하나가 되셨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고 전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내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나가 나무 아래서 명상에 들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느 한 순간 완전한 고요함 속에 잠겼다. 온 세상이 멈추어 선 듯 했다.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도 없었고 새들의 지저귐도 없고 산책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다.

한스옥은 당시의 느낌을 이렇게 얘기한다. “어느 정도 충격의 마비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저는 슬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깊은 감사함이 저를 충만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큰스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관대함으로 말입니다. 큰스님께서서는 모든 행하심 속에서 우리들에게 참된 인간으로 살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저 역시 이것을 제 내면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마음 깊이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는 동안 큰스님의 사랑과 보살핌은 항상 같이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대행 스님의 법문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한스옥 교수(사진 오른쪽)는 아내 베티나씨와 함께 독일 지원 회장과 부회장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심장병으로 생사 위기 처했던 가족 99년 스님 친견 후 마음 공부로 행복 찾으며 새로운 삶 얻어 “바람결 속에도 큰스님 계시요”

아내 베티나 씨는 올해 연등점등식에서 한국에 와 큰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친견했다. 그리고 그 순간 충만함과 감사함을 느꼈다. “제가 당시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것은 큰스님의 육신도 어떤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단 한 가지, 제가 큰스님과 스님의 가르침을 이 생에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이 길을 꼭 가리라는 서약을 했습니다”

이와 그녀는 1999년 봄 그들 가족이 한국에 처음 방문했던 당시를 회고한다. “그때 제 남편과 아들딸은 심장병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었어요. 스스로 제 안에 갇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저는 삶이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족은 스님을 친견하고 10여년 세월이 지난 지금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을 얻었다고 전한다. “저희들은 큰스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를 우리가 직접 맛 보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큰스님과 한국에 계신 스님들 그리고 한국의 도반 여러분들, 즉 한마음 공동체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스옥 씨 역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만나 한 인간으로서 또 의사라는 삶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회고한다. “의사로서 제 직업적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는 단 몇 문장의 말로는 표현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큰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 사람 모두가 서로 모두 연결돼 있고, 그들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성장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누군가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계속해서 이 길을 걷고자 한다. 한스옥 씨는 “나는 큰스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또 내가 경험했던 자유를 더 많은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도반들과 함께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큰스님의 가르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상에 씨앗을 뿌릴 것”이라며 다짐의 말을 전했다.

이제 병마에서 벗어난 아들 모리츠와 딸 한나는 어엿한 고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각각 성장했다. 특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은 대학생이 되면 물리학을 전공해 심성과학을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대학시절, 초발심 잃지 말라고 ‘격려’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선임연구원 심원 스님

“출가후 10년이 지나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스님의 신분으로 세속으로 나와 학교를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그때에 대행 스님의 법문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선임연구원 심원 스님은 대행 스님과 인연을 이렇게 얘기했다. 대학 진학 후 마음 고생이 심했던 1990년 즈음 스님에게 대행 스님의 만남은 큰 위로가 되었다.

심원 스님은 “대행 스님께서는 수행자로서 본심을 잃지 말고 초발심으로 꾸준히 정진 하라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며 “매우 친근하고 자상하게 대해주셨던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수행정진하고 있다”며 감회를 전했다.

대행 스님을 자주 친견하고 싶었지만 늘 많은 대중들이 스님을 만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스님을 친견한 횟수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늘 책과 방송 등을 통해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고 한다. “스님의 법문은 대중의 삶과 밀접해 있어 감동적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법문은 돈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보통 수행자들이 돈에



기를 꺼려하는데 스님은 돈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셨어요. ‘누군가 보시를 하면 당신 개인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하게 유용한 곳을 찾아 전달한다’는 말씀은 무척 감동적이었어요”

이어 그는 “그렇게 스님께서 사심 없이 세상을 위해 보시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스님의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 거 같다. 불교계의 크고 작은 불사도 묵묵히 해주셨다. 그렇게 재물이 적절한 곳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원리에 대한 법문은 참 좋았다”고 전했다.

현대불교신문의 독자라고도 말하는 심원 스님은 대행 스님의 언론출판 활동에 대해서도 극찬을 했다. “현대불교신문은 대행 스님의 원력이 잘 반영된 신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님의 크신 원력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혜숙 기자

“장애마저 감사하다는 깨달음 얻었죠”

어룩 달력 15년 만든 서예가 윤상민 씨

“참나는 누구나 다 있기에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2012년 한마음선원 달력 찾장에 담긴 대행 스님의 법어다. 매년 연말연시마다 한마음선원에서는 대행 스님의 법어가 담긴 달력이 나온다. 스님의 뜻을 힘찬 필체에 담아 대중들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주는 이 달력은 많은 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연말연시 선물 중 하나다. 그리고 15년 동안 법어를 붓글씨로 옮기는 이가 바로 서예가 윤상민 씨다.

대행 스님의 속가 조카이기도 한 그는 스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고 전한다. “소아마비로 남과 다른 인생을 살았던 저에게 있어 스님의 ‘길고 짧은 게 둘이 아니다’라는 법문은 너무나 큰 힘이 되었어요. 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스스로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때 처음 스님을 뵈 그 스님의 법문을 들은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고 한다. 당시 노랑집에 살았던 그는 어머니 손을 잡고 매일 버스를 타고 청량리에서 봉행되던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러 다녔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스님의



법문이 너무 좋았다”며 당시를 회고한다. 이후 그는 스님의 신도가 되어 한마음선원의 학생회와 청년회를 조직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렇게 스님을 통해 활기찬 삶을 살았던 그에게도 아픈 추억이 있다. 바로 한 의사를 꿈 꾸었지만 신체의 장애로 좌절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스님은 “의사는 다 방편이다. 결국 병도 다 마음으로 치유될 수 있다”라는 법문은 그에게 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는 “결국 큰스님 말씀대로 된 거 같다. 달력으로 스님의 법문을 전하며 신도를 마음을 치유해주고 있으니 내가 마음의 치유자가 된 거나 다름 없다”고 전했다.

이제 그는 장애마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스님께서는 저를 많이 사랑해주셨어요. 스님의 큰 법 속에서 많은 에너지를 받고 살아왔어요. 스님을 만난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정혜숙 기자

다시 듣는 대행스님 법문

자기 자신의 부처 될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2001년 동국대 정각원 초대회법회에서 ‘죽어야 나를 보리라’라는 주제로 대행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다쳐오는 모든 것을 그저 한 구덩이, 한 군데다가 전부 맡겨놓고, 안 되는 건 되게끔 굴러 놓고, 매사 걸 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게 속에서 일어나더라도, 바깥에서 어떠한 게 부딪쳐 오더라도 모든 것은 내 근본에서 내가 어찌하나 보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힘에 넘치게 일이 닦인다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싫어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고 묵묵히, 내 앞에 닦이는 거는 내 일이다 하고 그저 묵묵히 하십시오. 남한테는 부드럽게 대답하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생각하고, 부드럽게 생각해서 거기 맡겨놓고, 그것이 자꾸 자꾸 쌓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능숙해지는 때가 올 때 비로소 내가 있는 소식이 나옵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확고부동하게 실행했기에 나는 이렇게 떳떳이 말하는 것입니다. 전신술 속에 있는 알맹이만이 불이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는 항상 그 알맹이를 싸고 돌면서 거기가 모든 걸 굴러 놓는 것이 바로 나를 완성시키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몸이나 재물도 한 순간 생겨났다 사라지고 지식이나 학식도 영원한 것이 아니니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체가 한 자리에 서 들고남을 알아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천하 만물만생이 다 내 아님이 없

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구를 안정하게 하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길임을 명심 또 명심하여 한마음으로 지극히 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사람도 빠짐 없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물질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일체생명 살리는 길 아닌 길 걸어가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부처 될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근본 마음을 철저히 믿고 그에 귀의하십시오. 나는 수십 년간 오로지 이 말만 되풀이해 왔고 앞으로도 여전히 이 말만 되풀이 할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 다 죽는다 하더라도 어찌해 걱정하지 말고 내일 걱정하지 말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뛰어서 심부름을 ‘극진히 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한번 나와서 한번 갈 거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 거 서러워하지 마시고 꿇게 된다면 세세생생을 얻습니다.”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벌어졌고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만이 이끌어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고, 낮게 할 수 있고, 바로 너를 지켜주는 보디가드는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모든 걸 남을 위해서 산다면 오히려 내가 위해 집니다. 마음의 병을 고친다면 육신의 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중생이 있는 것만큼 부처가 있습니다. 안되고 되는 것을 쥐고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다면 한마음이 돼줄 수 있습니다. 근본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자기의 뿌리가 없다고 단정할 것입니까? 내 내면의 일을 알아야 바깥의 일도 알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나를 위하고 상대를 녹이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려놓는 것도 내려놓는 것도 우리 마음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이어지는 통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공부는 한다는 생각조차 없이 묵연히 그저 걸어갈 뿐이라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몸뚱이 버려야 합니다. 한 생애 알고 넘어가려면 오직 주인공에 모두 놓아라 내가 있는 한 부처님은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집결돼 있습니다.”

“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놓을때 비로소 그 안에서 모든 그 생명들의 의식이 모두 그 마음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마음부터 편안하고 너그러워지고 자꾸 돌로 보지 않는 마음이 생기니 바로 그게 조복입니다.”

365일 새기는 달력 속 어록

“자신의 삶 속에서 맛보고 증득하라”

“불법이란 만물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이다”
 “일체 경계를 돌로 보지 말라 모든 것이 다 주인공의 나뭇가지”
 “안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고 안되는 것을 다 쉬기 위해서 마음을 닦는 것이다”
 “생활을 떠난 도는 도가 아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권리를 갖고 있다”
 “주인공이라는 그 줄을 잡고 물러서지 마라 당신을 구할 것이다”
 “잘난 부처보다 못한 네가 낫느니라 네 자신 참 주인공을 스승으로 하라”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 하는 한마음인 것이다”
 “주인공 하나를 쥐고 일념으로 들어가다보면 비로소 홀연히 참나가 드러난다”
 “네가 나서서 노심초사 하는 것보다 텅 주인공에 맡겨두고 처리하는 것이 명쾌한 답이다”
 “주인공만이 주인공을 증명할 수 있다 그것을 굳게 믿고 들어가는 것이 관이다”
 “마음은 채가 없어 광대한 우주를 싸고도 남으나 내가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문아닌 문은 열리지 않는다”
 “생사를 알려거든 생사를 다 놓아라”
 “찰나찰나 다가드는 경계를 사랑으로 헤아리지 말라 그대로 믿고 맡겨놓고 가라”
 “참 자기에게 스스로가 미쳐야 한다. 사무치도록 애절하게 미쳐야 한다. 미쳤다는 소리 한마디쯤 안듣고는 이 공부하기 어렵다”
 “생활 속에서 일체를 평등하게 보고 진실히 관하면 생활이 그대로 수행인 것이다”
 “마음은 일체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나 하나만 알면 전체를 알게 된다”
 “물이 흐르는 것을 보라. 가다가 구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바위나 언덕을 만나면 끼고 돌아 흐른다. 참나를 찾는 공부도 그와 같아야 한다”
 “내 집부터 전화를 놓아야 걸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천년을 기다려도 소용이 없다”
 “생각하기 이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생각하기 이전은 생각될 수 없으므로 사랑심을 버리고 일체 경계를 다 본래 자리에 맡겨 놓으라는 것이다”
 “미물에게도 마음을 보내고 진실한 자비심을 갖는게 방생이다”

선원 곳곳에는 스님의 어록이 걸려있다. 신도들은 이 어록들을 마음으로 새기며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있다.